

# 해 외 출 장 복 명 서

|            |   |           |                 |  |
|------------|---|-----------|-----------------|--|
| 출 장 자      | 소 속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성 명<br>및<br>직 위 | 문유경 원장<br>김종숙 일과생애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br>장은하 국제협력센터 연구위원<br>김유민 국제협력센터 연구원 |
| 출장기간       | 2023. 3. 5. (일) - 2023. 3. 10.(금) [4박 6일]   |           |                 |  |
| 출장지        | 미국 뉴욕   |           |                 |  |
| 출장목적       | 2023 제6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부대행사 개최를 위한 미국 출장   |           |                 |  |
| 경비부담       | 본원 부담 (₩ 26,907,319)  |           |                 |  |
| 주최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  |
| 출장<br>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 제6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부대행사 개최</li> <li>• 글로벌 여성의제 동향 파악</li> <li>• 국제기구 및 각국 대표단과의 글로벌 여성의제 네트워킹 강화</li> </ul> |           |                 |  |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국제협력 활성화 사업

2023 제6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부대행사  
개최를 위한 미국 출장

# 출장 복명서

2023. 3. 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 제 협 력 센 터

## 1

## 출장 개요

□ 기간: 2023. 3. 5(일) - 3. 10.(금) [4박 6일]

□ 장소: 미국 뉴욕

□ 출장자 및 역할: 문유경 원장, 김종숙 선임연구위원, 장은하 연구위원, 김유민 연구원

## &lt;출장자 역할 분담표&gt;

| 이름  | 소속 및 직책 | 역할  |
|-----|---------|---|
| 문유경 | 본원 원장   | - 본원 주최 부대행사 참석 및 축하<br>- 국제기구 및 각국 대표단과의 고위급 간담회 참석<br>- CSW회의 참석을 통한 글로벌 여성의제 동향 파악         |
| 김종숙 | 선임연구위원  | - 본원 부대행사 발표: 디지털 전환과 여성 일자리<br>- 국제기구 및 각국 대표단과의 고위급 간담회 참여<br>- CSW회의 참석을 통한 글로벌 여성의제 동향 파악 |
| 장은하 | 연구위원    | - 본원 주최 부대행사 운영 총괄 및 사회<br>- 국제기구 및 각국 대표단과의 고위급 간담회 총괄<br>- CSW회의 참석을 통한 글로벌 여성의제 동향 파악      |
| 김유민 | 연구원     | - 본원 주최 부대행사(side event) 운영 주무<br>- 기관장 수행 주무<br>- 국제기구 및 각국 대표단과의 고위급 간담회 지원                 |

## □ 출장배경:

- 가. 2020년은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성평등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해였으나, 코로나19가 성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전 세계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후퇴시킴. 특히 디지털 혁신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권한 증진에 큰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기존의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성격차가 남아있고 이러한 문제는 여성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데 어려움을 야기함.
- 나. 2023년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6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에서는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의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혁신, 기술변화 및 교육’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였으며, ‘성평등 달성 및 농촌 여성·여아 역량강화 관련 도전과 기회’에 관해 점검하고, ‘중첩 위기 맥락에서의 성평등 달성’이라는 신규 이슈로 논의가 이루어짐.
- 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원은 여성가족부와 제67차 여성지위위원회(CSW)의 주요 주제인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Change, and Education in the Digital Age for 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all Women and Girls”와 관련하여 “디지털 전환과 여성 역량 강화”를 주제로 부대행사를 공동 개최함. 구체적으로, 본 행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 발전 및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고 여성과 여아들의 권한 증진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논의에 기여함.

라. 제6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부대행사에서는 또한 △디지털 시대의 젠더 디지털 격차 완화와 교육 촉진을 위한 장애요소 대응 관련 우수 사례, △여성·여아의 역량 강화와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포용적 혁신과 기술적 변화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출장목적:

- 가. 제6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내 본원 주최 부대행사 개최를 통한 대한민국 여성 정책의 성과 및 본원 연구 성과 확산
- 나. CSW 회의 참석 및 고위급 면담을 통한 글로벌 여성의제 동향 파악 및 향후 본원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 도출
- 다. 국제기구, 회원국 정부 대표단 등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한 네트워킹 강화 및 본원 국제협력 활동의 외연 확장

□ 출장 일정:

| 일자         | 세부내용   |   | 장소        |
|------------|--|---|-----------|
| 3/5<br>(일) | 오전   | • 전원 출국: 문유경 원장, 김종숙 선임연구위원, 장은하 연구위원, 김유민 연구원 (총 4인)<br>(KE081 인천 10:00 → 뉴욕 10:00, 14시간 소요)   | 인천→<br>뉴욕 |
|            | 오후   | • 유엔본부 및 고위급 면담 장소 사전 답사<br>•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와의 사전점검 회의  |           |
| 3/6<br>(월) | 오전   | ○ CSW 개회식 참석  | 뉴욕        |
|            | 오후   | ○ 캐나다 정부 주최 부대행사 참관<br>○ 유엔인구기금(UNFPA)과의 고위급 간담회<br>○ 부대행사 개최 사전점검을 위한 출장단 회의                   |           |
| 3/7<br>(화) | 오전   | ○ 일본 NWECA와의 고위급 간담회<br>○ 호주 eSafety와의 고위급 간담회  | 뉴욕        |
|            | 오후   | ○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고위급 간담회<br>○ 한국 여성가족부 장관 및 여성계 지도자와의 고위급 간담회 (오찬)<br>○ 부대행사 회의장 (시설 사전점검 및 준비) |           |
| 3/8<br>(수) | 오전   | ○ 본원 주최 부대행사 개최   | 뉴욕        |
|            | 오후   | ○ 여가부,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와의 부대행사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실무진 회의   |           |
| 3/9<br>(목) | • 전원 귀국 (KE082 뉴욕 12:00 → 인천 17:40+1일, 3/10 (금) 인천 도착) |   | 뉴욕→<br>인천 |

□ 일시: 2023. 3. 8.(수), 8:30~9:30, Conference Room A

□ 세부일정

| 일시          | 구분  |
|-------------|---|
| 08:30-08:45 | 개회사<br>-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br>-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
| 08:45-09:20 | 발표<br>▪ 발표 1: 디지털화와 여성의 권한증진 (사라 헨드릭스 유엔여성기구 정책·프로그램·정부간협력국장)<br>▪ 발표 2: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대한민국 사례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br>▪ 발표 3: 모든 공간을 안전하게 만들기: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 (알렉산드라 로빈슨 유엔인구기금 젠더 기반 폭력 전문가)<br>▪ 발표 4: 안전 확보를 위한 호주의 접근법: 온라인안전국의 인사이트 (줄리 인만 그란트 호주 온라인안전국 국장) |
| 09:20-09:25 | 종합토론 및 Q&A  |
| 09:25-09:30 | 폐회  |

## 개회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디지털 사회로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고, 이는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동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함. 이어서 과학기술·이공계 분야의 여성인력 육성, 경력단절 여성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의 대한민국의 다양한 관련 정책을 소개함. 또한 새로운 기술과 함께 국경을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종식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함. 해당 부대행사는 디지털 젠더격차와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특히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분석과 온라인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통해 여러 국가와 관련 기관들에게 많은 시사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연설을 마무리함.

□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기술 발전은 여성들에게 사회·경제적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새로운 어려움 야기하기도 한다고 지적함. 많은 여성들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중 하나인 한국은

많은 여성들이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본원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춰 디지털화와 여성의 일자리 연구 및 기술 기반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해당 부대행사를 통해 정부 기관, 국제 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시대의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포용성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되길 기대함. 올해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해임을 밝히고, 앞으로도 연구를 통해 여성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연설을 마무리함.

## 발표요약

- 동 행사는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와 4명의 전문가의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디지털 기술 발전 및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발전의 장점을 소개함과 동시에 디지털 전환기에 성평등에 장애가 되는 주요 도전과제에 대해 해당 국가 및 기관의 정책과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함. 각각의 발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발표자인 사라 헨드릭스 유엔여성기구 정책·프로그램·정부간협력국장은 “디지털화와 여성의 권한증진”이라는 큰 관점에서 발표를 진행함. 디지털화는 21세기를 특징짓는 엄청난 변화 중 하나이지만, 기후 변화, 생활비의 증가, 분쟁 및 COVID-19 전염병은 디지털화를 후퇴시킬 위협이 있다고 지적함. 포용성, 상호교차성, 구조적 변화라는 페미니스트 원칙을 핵심으로 하여 디지털화에 대한 인간 중심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기술에 대한 인간의 주체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함. 이러한 의미에서 CSW67 및 Global Digital Compact 은 이러한 의제를 논의할 중요한 기회이며, 기술과 혁신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것은 2030 의제와 SDGs 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강조함. 관련 논의 주제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함: 1)디지털 접근 및 역량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를 타파하기 위해 교차적 접근을 취할 것, 2)포용적이고 변혁적인 혁신 생태계 형성, 3)혁신 및 기술 설계, 개발 및 확산 전반에 젠더 관점 포함, 4)기술로 촉진되는 젠더 기반 폭력 예방 및 근절을 통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안전 확보 등임. 이어 주요 권고사항으로 1)디지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성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것, 2)포용적 디지털 변혁과 젠더 변혁을 위한 자금 조달, 3)성인지적 디지털 교육 및 과학기술 교육 육성, 4)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고용 및 리더십 촉진, 5)성인지적 기술 설계, 개발 및 인력 배치, 6)디지털 시대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강화, 7)성평등 발전을 위한 데이터 과학 강화, 8)기술로 촉진되는 젠더 기반 폭력을 예방/근절 및 온라인에서 여성과 소녀의 권리 보호 등임. 마지막으로 작년에 서울에 개소한 유엔우먼 성평등센터의 동 주제와 관련된 계획을 소개하며 발표를 맺음.
- 두 번째 발표자인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대한민국 사례”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하여 디지털 변환과 섹터별 변화, 고용에서의 변화와 성격차, 한국의 관련 정책을 소개함. 디지털 변환은 프로세스 변환, 비즈니스 모델 변환, 도메인 변환, 문화/조직 내 디지털 변화의 4가지 틀에 기반하여 분석할 수 있음. 현재 한국의 산업 내 디지털 변환은 변화의 초기 단계에 진입해 있으며 디지털 변환이 어려운 이유로는 높은 투자비용, 불확실성, 인력부족, 인프라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이어서 국내 산업별 디지털 변환을 소개하였는데, 섹터별 변환의 첫 번째로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도매업, 도매, 레스토랑&호텔, 부동산, 교육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하락한 반면, 금융, 통신, 과학기술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건강 및 사회 서비스 분야는 부가가치가 상승함. 고용 측면에서는 통신,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건강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여성 고용율이 증가 하였으며, 제조업, 도매업, 요식업, 호텔업, 부동산업, 금융업, 교육업에서 여성 고용율이 감소함. 미래 예측 측면에서는 2035년 디지털 변환으로 인한 노동 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보면, 관리자, 전문가, 서비스는 노동수요가 증가, 영업 사원, 기술자, 단순 작업자는 수요 감소가 예측됨. 디지털 변환이 이루어진 섹터에서 여성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됨을 강조함. 이어 국내 기업의 디지털 교육과정과 새일센터의 프로그램 소개 등의 한국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였고, 또한 KOWIN(한국여성국제네트워크), STEM분야 여성 연례 회의, 공학 및 화학 분야 여성임원 멘토링 및 네트워킹, 청년 과학자 캠프 등의 여성의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무리함.

□ **세 번째 발표자인 알렉산드라 로빈슨 유엔연구기금 젠더기반폭력 전문가**는 “모든 공간을 안전하게 만들기: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라는 발표를 통하여 기술로 촉진되는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정의, 특성,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개괄함. “기술 기반 젠더 기반 폭력(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TFGBV)”은 한 명 이상의 개인이 정보통신 기술 또는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사람을 상대로 자행, 지원, 악화 및 증폭되는 폭력 행위”라고 정의함. TFGBV는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에 해결이 어려움: 1) 익명성 2)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서 발생 3) 가해자가 (온라인상에서) 접근하기 용이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음 4) 자동화될 수 있음 5) 지속적이고 쉽게 전파될 수 있음 6) 집단적으로 조직 가능 7)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부재, 8) 콘텐츠 삭제가 어려움 9)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의 정상화(당연하다고 생각) 등이 있음. 특히 개발단계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인지적이지 않은 알고리즘에 의해 TFGBV가 강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함. TFGBV의 해결을 위해 안전하고 윤리적이고 생존자 중심의 데이터 생산, 인권기반 법과 정책, 생존자 중심의 대응과 예방, 안전한 그리고 윤리적인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아울러 TFGBV의 새롭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형태와 특성을 감안할 때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민간 기술 기업과 국가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는데, 이는 TFGBV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과 규제가 여성과 여아의 경험을 고려하여 인권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함.

□ **마지막 발표자인 줄리 인만 그란트 호주 온라인안전국장**은 “안전 확보를 위한 호주의 접근법: 온라인안전국의 인사이트”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동 기관의 성격과 운영을 소개함. 호주 온라인 안전국은 사이버 괴롭힘, 디지털성범죄, 불법 온라인 게시물 등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여 온라인 안전에 대한 다각적·총괄적·선제적 대응을 하는 정부 기관임. 온라인 안전법에 의거하여, 아동 사이버 괴롭힘(cyberbullying), 불법 또는 금지 콘텐츠, 이미지 기반 학대, 성인 사이버 학대 등의 분야에서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대응함. 아울러 필수적인 규제(code)를 신규로 수립함과 동시에 기본 온라인 안전 기대치에 충족하는 조치들을 제시함(규제 안내서 발간). 필수 규제 수립의 경우 기업들에게 유해하고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세이프가드를 제공하며, 기본적인 온라인 안전

조치들의 경우, 해당 기업이 온라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야 할 합리적인 조치들에 대한 안내를 제공함. eSafety는 규제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해당 기관과 협력하고 기관을 설득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 또한 플랫폼 개발 초기부터 온라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평가툴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술회사가 개발단계 초기부터 기업의 문화, 정신 및 운영에 안전을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함. 이 툴은 현재 52개국의 회사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고 있음. 아울러 업무 환경에서의 온라인 학대의 경우, 여성 3명 중 1명이 직장에서 온라인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며, 개인화된, 성차별적, 폭력적, 불균형적, 실질적, 지속적인 피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온라인 학대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며, 호주 안전국은 이러한 예방적 조치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있음.

\*평가툴 웹페이지: <https://www.esafety.gov.au/industry/safety-by-design/assessment-tools>

### 3

## 제67차 여성지위위원회 세션 참가

### 1. 개회식 참가

□ 일시: 2023. 3. 6.(월), 10:30-13:00, 미국 뉴욕 UN 본부 Assembly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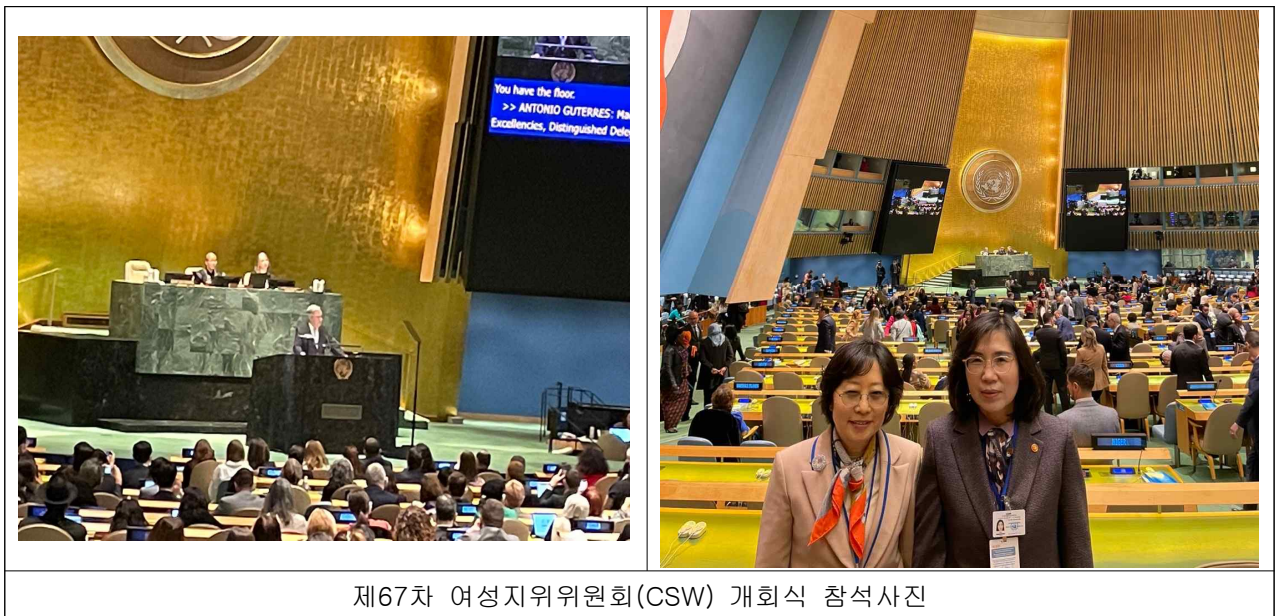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문유경 원장

### □ 주요내용 정리

○ 여성지위위원회(CSW)는 성평등과 여성 권한 증진을 위한 글로벌 정부 간 기구로, 1946년 6월 이사회 결의 11(II)에 의해 설립됨. 제 67차 여성지위위원회는 6일부터 17일 까지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change, and education in the digital age for 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all women and girls'를 주제로 열리게 될 예정임. 개회식은 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였음. Guterres 사무총장은 유엔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 중 하나로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해당 회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의 여성의 기여는 여성 뿐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임을 언급하며 전세계의 여성과 여아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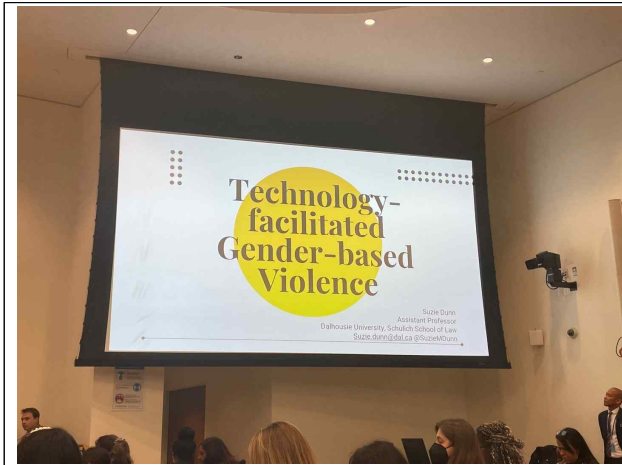


제67차 여성지위위원회(CSW) 개최식 참석사진

\*여성지위위원회의 본 회의 참석을 위한 별도의 입장 티켓은 국가별로 개수가 제한되어 있어 한정 인원만 참석 가능함.

## 2. 캐나다 정부 주최 부대행사 참관

- 일시: 2023. 3. 6.(월), 15:00-16:15, 미국 뉴욕 UN 본부 Conference Room 1
- 주제: 디지털 기술이 젠더기반폭력에 미치는 영향 (Exploring the impacts and influences of Digital Technologies on Gender Based Violence Work)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문유경 원장, 김종숙 선임연구위원, 장은하 연구위원, 김유민 연구원
- 주요내용
  - 젠더기반폭력은 전 세계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글로벌 차원에서 성평등을 달성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 정부 및 비정부기구들은 오랜 기간동안 더 안전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많은 발전이 있었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젠더기반폭력 근절에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나고 있지만 동시에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폭력 근절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함.
  - ‘Exploring the impacts and influences of Digital Technologies on Gender Based Violence Work’의 주제로 한 캐나다 정부 주최 부대행사 참여함. 해당 부대행사는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캐나다의 국가행동계획을 강조하고, 디지털 기술이 젠더기반폭력 근절에 끼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보여줌. 글로벌 사례들을 소개하여 캐나다 국내 및 글로벌 사회에서 젠더 기반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노력함.



캐나다 부대행사 참석사진

## 4 기관 방문 및 업무협력 회의

### 1. 유엔인구기금(UNFPA) 기관 방문 및 고위급 간담회

□ 일시: 2023. 3. 6.(월), 16:00~17: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문유경 원장, 김종숙 선임연구위원, 장은하 연구위원, 김유민 연구원

○ UNFPA 참가자: Ian McFarlane UNFPA 전략 파트너십 국장, Andrew Billo 인도주의 자금조달 파트너십 전문관(서울사무소장 대행)

□ 주요내용

- 유엔인구기금(UNFPA)은 임신의 자유와 출산의 안전,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활동을 주도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1969년도에 설립되었음. 중점 분야는 성·재생산 건강, 청년, 인권 및 성평등,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와 같은 인구 문제 등이 있음.
- 유엔인구기금과 한국 간의 협력은 유엔인구기금이 한국 정부의 인구 정책 및 가족 계획을 지원하기 시작한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감. 유엔인구기금은 인권 기반 가족계획의 수립과 인구 조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사용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제공한 바 있음.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저출생 및 고령화 심포지엄’에서 인구통계 및 한국의 저출생과 관련한 기초연설을 매우 흥미롭게 들었음. 이는 UNFPA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관성이 높음.
- UNFPA는 한국과 같이 충분히 발전된 국가에서는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음. 하지만 정책적 자문 등과 같은 형태로 글로벌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지역적 논의에서 발전하여 국제적 교류 및 협력을 위해 UNFPA와 본원이 실질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함.



## 2. 유엔인구기금(UNFPA)

□ 일시: 2023. 3. 6.(월), 17:00~18: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문유경 원장, 김종숙 선임연구위원, 장은하 연구위원, 김유민 연구원

○ UNFPA 참가자: Rachel Snow UNFPA 인구개발국장, Nafissatou Diop UNFPA 젠더인권국장, Andrew Billo 인도주의 자금조달 파트너십 전문관(서울사무소장 대행),

□ 주요내용

- UNFPA에서는 한국 통계청에서 펀딩을 받아서 'Youth Aspiration'에 관한 연구를 시작함. 1. 결혼, 2. 재생산 3. 가정에서의 성역할, 4. 일·가정 양립, 총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음. 출산률이 1.7 이하인 국가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한 질적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이 연구의 협력 파트너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을지 질문함. 젊은 세대들의 결정들(예를 들어, 비혼, 무자녀 등)에 대한 이유를 탐구하고자 함.
- 2022년 한국에서 개최된 「글로벌 저출산 및 고령화 심포지엄」에서 문유경 원장님의 발표가 인상적이었으며, 특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저출생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분석이 매우 독창적이었으며,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협력을 희망함. UNFPA의 경우에는 저출생 정책 모니터링에 있어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협력 가능함.

## 3. 일본 국립여성교육센터(NWEC)와의 업무 협력 회의

□ 일시: 2023. 3. 7.(화), 09:00~10: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문유경 원장, 김종숙 선임연구위원, 장은하 연구위원, 김유민 연구원

○ 일본 국립여성교육센터 참가자: Miho Watanabe 국제교류센터장

□ 주요내용

- NWEC는 여성과 가족에 관한 실용적인 훈련과 연구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

관으로 작년에 44주년을 기념하였음. 설립 초기에는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어 평생교육을 담당하였고, 2001년도에 독립행정기관으로 개편되면서 교육의 기능 뿐 아니라 일본의 지역성평등추진센터, 지방자치단체, 대학, 학교, 기업 등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성평등 사회 구축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해왔음. 작년부터 NWECA가 일본 내각부 산하기관으로 성평등부서 소속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한국도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최근 여성 노인의 건강 및 빈곤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의 관련 성공 정책 사례들이 한국에 큰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음. 향후 NWECA가 일본 내각부 산하기관으로 개편시 양 기관의 교류 협력 주제가 확대될 수 있음.

#### 4. 호주 온라인 안전국(eSafety Commissioner)과의 업무 협력 회의

□ 일시: 2023. 3. 7.(화), 10:00~11: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문유경 원장, 김종숙 선임연구위원, 장은하 연구위원, 김유민 연구원

○ 호주안전국 참가자: Deborah Welsh 호주 온라인안전국 국제전략미래과장

□ 주요내용

- 온라인안전국은 7년 전에 온라인안전강화법(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5)에 의거하여 설립됨. 본 기관은 3Ps; Prevention, Protection, Proactive and systemic change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방지(Prevention)와 관련하여 교육이 우선적인 과제임. 또한 비동의 성적 촬영물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사건이 발생한 해당 온라인 플랫폼이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 eSafety에서 지원함. 'Basic Online Safety Expectation' 이라는 것을 발행하여 소셜 미디어 회사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온라인 성폭력과 관련된 인식제고를 실시함.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스카이프, 틱톡, 스냅챗, 구글, 디스코드 등과 같은 다양한 회사들과 소통하여 어떤 기술들이 비동의 성적 촬영물을 삭제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는 가해자들을 향한 제재 방식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음. 또한 각 회사들이 그들만의 규제를 만들어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났을 때,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
- 본원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호주형사연구원(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과의 협력을 추천함. 동 기관은 최근에는 데이팅 어플과 관련된 연구를 하기도 하는 등 온라인성폭력과 관련된 연구물을 발행하고 있음.

#### 5. 유엔개발계획(UNDP) 기관 방문

□ 일시: 2023. 3. 7.(화), 11:30~12:3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문유경 원장, 김종숙 선임연구위원, 장은하 연구위원, 김유민 연구원

○ UNDP 참가자: Raquel Lagunas 글로벌 성평등 국장, Diego Antoni 정책 전문관

□ 주요내용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주제들과 UNDP의 주요 미션 간에 공통 주제가 많음. UNDP에서 작년에 발간한 ‘Gender Equality Strategy 2022-2025’에서 밝힌 바와 같이 UNDP는 성평등, 빈곤, 일·가정 양립, 개발도상국 원조 및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번 CSW 주제이기도 한 디지털 기술과 여성의 삶(온라인 젠더기반폭력 등) 또한 젠더문제와 환경, 에너지 문제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UNDP가 최근 중점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주제임.
- UNDP는 Feminist Economists와도 협력하여 노동시장의 글로벌 트렌드를 조사하는 프로젝트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또한 무임금 가사노동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측정을 한국에서도 진행하고 있음. UNDP에서는 이 프로젝트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 정책 개선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 UNDP에서는 Gender Equality Social Norms Index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음. 이를 바탕으로 공공정책 시행 개선이 목표임. 4월에 관련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출간 예정임.



UNDP 기관방문 사진

## 6. 한국 여성가족부 장관 및 여성계 지도자들과의 고위급 간담회

□ 일시: 2023. 3. 7.(화), 13:00~14:30, 미국 뉴욕 소재 식당

□ 참가자

○ 원외 참가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본원 참가자: 문유경 원장, 김종숙 선임연구위원

□ 주요내용

- 간담회에서는 CSW 회의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대한민국 성평등 확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에 동의함. 코로나로 대면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개최되는 회의여서 참석자도 많고 국제사회에서 젠더 이슈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음. CSW는 국제사회가 모여 젠더문제를 논의하는 장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음.

## 5

## 부대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진 업무협력 회의

### 1.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와 의 부대행사 사전점검 회의

□ 일시: 2023. 3. 5.(일), 19:00~20:30, 유엔 본부 인근

□ 참가자

○ 원외 참가자: 주유엔한국대표부 이예승 (서기관)

○ 본원 참가자: 장은하 연구위원, 김유민 연구원

□ 주요내용

○ 여성지위위원회 전반적인 스케줄 공유 및 유엔 본부 총회장 입장 관련 의전 논의, 고위급 간담회를 위한 유엔 본부내 장소 소개 및 답사, 부대행사 진행 관련 업무분장 논의

### 2. 부대행사 개최 사전점검을 위한 출장단 회의

□ 일시: 2023. 3. 6.(월), 19:00~20:30, 유엔 본부 및 뉴욕 소재 식당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문유경 원장, 김종숙 선임연구위원, 장은하 연구위원, 김유민 연구원

□ 주요내용

○ 부대행사가 열리는 유엔 본부 내부 및 시설 장비 체크. 연사 정보 및 발표자료 공유. 부대행사 리허설 진행 및 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 논의

### 3. 부대행사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실무진 회의

□ 일시: 2023. 3. 8.(수), 19:00~20:30, 뉴욕 소재 식당

□ 참가자

○ 원외 참가자: 주유엔한국대표부 이예승 (서기관), 주유엔한국대표부 송혜령(참사관), 여성가족부 이진희(사무관)

○ 본원 참가자: 문유경 원장, 김종숙 선임연구위원, 장은하 연구위원, 김유민 연구원

□ 주요내용

- (부대행사 평가)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함. 디지털화가 여성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시의적절하게 논의되었음. 특히 청중들의 온라인성폭력과 이에 대응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대응 방안에 대한 관심이 뛰어나며, 최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의 매우 높아진 것을 실감할 수 있었음.
- (개선사항) 질의응답 시간에 참여를 원하는 청중들이 많았음. 더 많은 청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표 시간 조절 등이 아쉬움. 부대행사 이후 발표자들간의 소통 및 발표자와 청중들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시간 또한 필요함.